



바이오산업 혁신 본격화

도,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 '차바이오텍'과 맞손
바이오산업 공동 발굴 등 종합적 협력 체계 구축
연구개발·협력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주)차바이오텍과 손잡고 지역 바이오산업 혁신을 본격화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연구개발 협력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북도 중앙협력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한기원 (주)차바이오텍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생태계 고도화 전략'의 핵심 과제로,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차바이오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바이오산업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협력 △R&D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 교류 활성화 △첨단 바이오 연구·치료 개발 인프라 조성 △행정·연구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전문교육 지원 등 종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전북도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첨단 재생의료 중심지 조성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차바이오텍은 세포치료제와 줄기세포 연구,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등 미래 의료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전북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풍부한 지역 자원을

결합하면 신약 개발, 임상 연구, 치료 기술 상용화 등에서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이번 협약이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 기업 유치와 관련 연구소 설립, 임상시험센터 확대 등이 뒤따를 경우 직접적인 투자 유발 효과와 함께 지역 내 생산·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임상 전문 인력, 바이오 생산인력 등 고급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면서 청년층 유입과 지역 인재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주)차바이오텍과의 협약은 전북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과 기업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전북을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전북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한기원 (주)차바이오텍 사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협약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지역 과학기술연구·산업 발전 공로 인정

제5회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인 대상 수상자 3명 선정

김현수 대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로 신산업 개척
윤영상 교수, 환경소재 연구... 세계상위 2% 과학자 등재
정창화 본부장, 식품 기능성 등 연구 통해 학술가치 제고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연구·산업 발전 공로에 대한 인정을 위해 제5회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인 대상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현수 대표



윤영상 교수



정창화 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은 지역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 조성을 통해 도내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자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도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주)다이나믹인더스트리 김현수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윤영상 교수 △한국식품연구원 정창화 본부장으로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5월 후보자 추천 공고를 시작으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총 11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현지실사와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을 엄선했다.

먼저, (주)다이나믹인더스트리 김현수 대표이사는 태양광 폐패널 내 회소금속 재활용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관련 특허 등록·출원 1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1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 우수기술기업 인증과 2024년 전북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100기업에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약 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납원에 생산공장을 신축하고 있다. 공장은 올해 11월 완공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윤영상 교수는 환경소재 및 공정분야 연구를 통해 약 320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스탠포드대학교 엘스비어(Elsevier) 출판사가 발표하는 '세계상위 2% 과학자'에 등재되는 학술적 성과를 거뒀다.

금속회수기술 개발 분야에서 국내 특허 등록·출원 3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 기술 및 특허를 기업에 이전해 산학협력을 실현했다. 특히 폐배터리로부터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엠펙스를 창업해 기술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정창화 본부장은 식품과 건강 관련 분야에서 130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관련 기술 및 특허등록·출원 44건을 보유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천연물을 활용한 체중조절, 모발 건강 관련 2건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했으며, 지역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기획과 제안, 푸드테크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더 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골자

'이사 총실 의무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 후속 입법

2차 상법 개정안, 일명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해 통과된 이 법안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날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상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기권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석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 42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분리선출 감

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총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또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다.

/이만호 기자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

도·남원·진안·임실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부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전북도와 남원·진안·임실 3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4억원과 충전사업자 민간투자 5억 원으로 추진된다. 충전시설은 공공기관, 공공주차장, 관광지 등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설치돼 도민과 관광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환경부 브랜드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충전사업자가 협약을 맺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충전사업자는 국비를 보조받아 지자체 내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충전시설 10기(금속 5기, 완속 5기)를 확보했으며, 이번 2차 공모에서는 15개소에 금속 19기, 완속 31기 등 총 50기를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정읍시의회

www.jcc.or.kr